

탈식민 텍스트에 나타난 정치적 알레고리: 조이스의 『율리시즈』

최 석 무

I

알레고리는 작품과 작품외적 상황의 1 대 1 대응을 통해 문학작품의 의미를 직선적으로 확대하는 기법이다. 알레고리가 사용된 작품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내러티브 보다 이면에 내재해 있는 의미가 작가에게 더욱 중요하다. 1 대 1 대응을 통해 표면적 내러티브는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등 여러 상황에 적용되어 확대된 의미를 생산한다. 이때 이야기의 각 부분은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 평행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이와 같이 알레고리 기법은 내러티브와 다른 상황을 연상시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문학 기법으로서의 한계성도 가진다. 즉, 알레고리가 포함된 작품에서는 정해진 대응 관계 속에서 의미를 추구해야 하므로 의미를 한정시키는 위험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레고리 기법은 작품의 의미를 일정한 틀 속에 두어 작가가 의도한 사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제국주의 정복을 소재로 한 식민 텍스트는 알레고리적 특성을 다분히 포함하

고 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기본적인 작품구조를 형성한다. 잔모하메드(JanMohamed)가 주장하듯이, 식민 텍스트는 “마니교적인 알레고리의 질서체계”를 담고 있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이 뚜렷하게 제시된다(19). 이러한 텍스트는 백인은 선을, 유색인종은 악을 대변하는 인물로 읽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식민 텍스트인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는 유색인종은 야만인 또는 식민종으로 백인의 안정을 위협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주인공 크루소를 도와 고락을 같이한 프라이데이(Friday)나 슈리(Xury)도 알레고리적 범주 안에서 해석되어 크루소에겐 쉽게 잊혀진다. 왕철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프라이데이의 장례묘사는 비정할 정도로 짧게 묘사되어 섬에서 돌아온 후 그는 더 이상 쓸모 없는 인물이 된다(61). 반면에 백인인 크루소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고, 무인도에서의 고된 삶은 종국엔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된다. 식민주의 문학은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처럼 이분법적인 알레고리를 사용하면서 백인과 유색인종의 지배/피지배의 권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다.

알레고리 기법은 탈식민 텍스트에서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물론 알레고리가 서구 제국주의 문학에서 먼저 사용되었으므로 탈식민주의자들은 반대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그 기법을 전유한 것이다. 그렇지만 알레고리 기법은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글쓰기를 하는 피지배민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기법이다. 제국주의의 물리적 및 문화적 위협에 저항하여 글쓰기를 하는 탈식민작가들은 정치적 담론을 문학을 통해 구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표면과 이면이 다른 글쓰기가 요구된다. 그 방법중의 하나가 알레고리 기법이다. 탈식민 비평가들이 “텍스트의 탈식민성은 알레고리와 같은 재현방식이 보여주는 담론적 특성에 있다”(Ashcroft *et al.* 193)고 주장할 정도로 알레고리는 식민지배하의 작가들에게 저항적 글쓰기 도구가 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모든 제3세계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민족의 알레고리이다”(69)라고 말하면서 피지배민을 위한 알레고리 기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이재즈 아매드(Aijaz Ahmad)는 제3세계를 식민주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정의하여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임슨의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제임슨은 모든

제3세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족의 알레고리가 아닌 작품은 진정한 제3세계문학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78-82). 아매드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문학은 식민경험이란 냉혹한 현실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식민화의 경험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식민지배하에 출판된 작품은 검열의 위협성을 극복하기 위해 알레고리와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알레고리는 저항의 식의 표현이다.

영국 식민지배하의 아일랜드 상황을 작품의 소재로 한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알레고리적 글읽기와 글쓰기를 실천한 작가이다. 그는 다니엘 디포(Daniel Defoe)를 “영국소설의 아버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로빈슨 크루소』에 나타난 지배/ 피지배의 식민담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로빈슨 크루소』에 관한 서평에서 영국인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인물은 잔 불(John Bull)이 아니라 로빈슨 크루소라고 말한다. 조이스는 로빈슨 크루소를 “영국 식민주의자의 원형”으로 보았고 프라이데이를 “피지배민의 상징”으로 보았다(323). 조이스의 이러한 견해는 『로빈슨 크루소』가 영국의 식민 정복과정의 알레고리라고 보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조이스가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인물(크루소와 프라이데이)이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를 제시해 줌으로써 이 작품을 알레고리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조이스의 글쓰기 또한 알레고리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율리시즈』는 작품 제작단계에서부터 알레고리적 평형관계를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다는 점에서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다. 조이스가 『율리시즈』를 읽는 방법으로 스튜어트 길버트(Stuart Gilbert)에게 제시한 스키마에는 대응관계(CORRESPONDENCES)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 장의 핵심요소들이 호머(Homer)의 『오디세이』(Odyssey) 상황과 1 대 1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난해하게 보이는 조이스의 작품을 읽는 방법으로 조이스가 제시한 호머와의 평형관계는 독자들이 호머의 오딧세이 신화를 생각하면서 조이스 작품을 읽게 한다. 독자들은 표면적으로 의미 없어 보이는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에서 신화 속의 영웅들의 모험담이 현대에는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 탐색하는 글읽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이스는 호머와의 대응관계는 작품의 의미를 신화적인 상황으로 고착시켜 버리는 위험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사실 호머의 신화는 조이스가 작품을 구성하는 동뎀 역할을 담당하였지, 독자에게는 작품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이스는 이러한 의미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에 의도했던 신화와의 평형관계를 거부하려 했다. 이는 호머에서 유래한 타이틀을 『율리시즈』 각 장의 제목으로 사용하고자 한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나중에 제목을 삭제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알레고리 기법은 작품의 의미를 한정시키는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조이스의 경우에서처럼 작가가 작품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대응관계를 부여할 때, 그 만큼 작품의 의미는 축소되어 버린다. 그러나 알레고리 기법은 각기 다른 상황에 평형적으로 적용될 때,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특히 『율리시즈』처럼 읽기 난해한 소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알레고리적 대응관계를 생각하면 특정한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알레고리적 작품분석은 작품이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 조이스의 작품을 작품이 생성된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배/ 피지배 관계는 알레고리적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율리시즈』를 아일랜드의 식민지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알레고리로 보고, 조이스의 저항의식을 탐색하려 한다. 먼저, 작품에 나타난 상황들이 외부의 정치현실과 어떤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식민지배 상황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특히, 『율리시즈』의 “텔레마쿠스”(Telemachus), “사이렌스”(Sirens), “페넬로피”(Penelope) 장을 분석하면서 영국의 아일랜드 정복 과정이 알레고리 기법으로 나타나 있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조이스의 알레고리 기법을 분석하면서 조이스가 문학을 통해 어떻게 탈식민화를 추구하였는지 알아보겠다.

II

『율리시즈』의 첫 번째 장인 “텔레마쿠스” 장은 작품 전체를 정치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듯, 강한 정치적 알레고리를 담고 있는 장이다. 조이스의 스키마는 이 장을 호머와 햄릿(Hamlet)과의 대응관계에서 보도록 하지만, 조이스의 작품배경이 식민 시대임을 감안할 때 전혀 다른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다. 즉, 스티븐-아일랜드 민족 작가, 헤인즈-영국인 침략자, 멀리간-영국인을 돕는 친영파,

우유배달 할머니—아일랜드로 보는 대응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대응관계를 토대로 “텔레마쿠스” 장을 영국인이 친영파의 도움을 받아 아일랜드를 식민화하는 과정의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텔레마쿠스” 장은 정복의 메시지를 알레고리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들이 각각의 대응관계에 합당하도록 여러 장면을 담고 있다. 먼저, 헤인즈는 영국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된다. 멀리간에 의하면 그는 “돈과 소화불량으로 배가 터질 지경에 있는 영국인”(1.152-3)이다. 영국을 대변하는 헤인즈가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본 소설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국주의 약탈과 관계 있음이 그의 아버지의 행적을 통해 암시된다. 즉, 그의 아버지는 “줄루족에게 설사약을 팔았거나 아니면 무슨 사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1.156-57). 그는 스티븐이 세를 지불하는 마텔로(Martello) 탑에 허락도 없이 머무른다. 빈센트 첵(Vincent Cheng)이 주장하듯이, 마텔로 탑은 “식민 지배하의 아일랜드의 상황을 나타내는 제유법으로 아일랜드의 일부로 아일랜드 전체의 딜레마를 구현하고 있다”(151). 따라서 헤인즈가 마텔로 탑에 머무르는 것은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는 또한 헤인즈가 가지고 있는 은색 담배 케이스에 의해 상징된다. 그 케이스에는 “녹색의 보석이 박힌 채 반짝이고”(1.615-16; 9.101-2) 있는데 이 또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텔레마쿠스” 장 여러 군데서 헤인즈는 영국인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불린다. “사이클롭스” 장에서 영국 정복자를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인 “Sassenach”(12.1191; 12.1369)를 본 장에서 멀리간은 헤인즈를 부르는 호칭(1.232)으로 사용한다. 또한 흔히 영국은 “바다의 지배자”(1.574)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호칭이 헤인즈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됨으로써 헤인즈는 영국을 대변하는 유형화된 인물로 등장한다. 스티븐이 멀리간의 옥스퍼드 대학 경험담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클라이브 챔소프의 방에서 울려 나오는 부티 나는 목소리의 싱싱한 외침들. 창백한 얼굴들”(1.165-66.)이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옥스퍼드 대학생들에 대한 묘사는 헤인즈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헤인즈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클라이브 챔소프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국인의 종족의 특성이 부각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로 부자가 된 영국인의 모습을 “부티 나는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고, “아일랜드 속어로 영국인”을 지칭하는 “창백한 얼굴들”(Palefaces)을 사용하고 있다.

(Gifford and Seidman 17). 이와 같이 “텔레마쿠스” 장에서는 전형적인 영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헤인즈를 표현함으로써 헤인즈를 영국을 대변하는 인물로 확장해석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있다.

영국 제국주의자를 상징하는 알레고리적 인물로서의 헤인즈의 모습은 그의 일상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날 밤, 헤인즈는 꿈속에 나타난 표범을 잡기 위해 실제 총을 발사한다. 이러한 모습은 식민지에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영국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헤인즈가 아일랜드에서 수행하는 활동 역시 식민지배자들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그는 스티븐의 재치있는 말을 듣고서 “격언집”(1.480)을 만들려고 한다. 헤인즈의 이러한 행동은 아일랜드 지식인을 높이 만드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와 같은 영국학자들은 아일랜드인에게 피지배민의 정체성을 부여하여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 담론을 만드는 데 공헌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효율적이지는 못하지만 시적 상상력, 감정과 정신력에 있어서는 우수하다고 보았다. 헤인즈의 행동도 아놀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헤인즈가 스티븐의 재치있는 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일랜드 사람에게 이제 정치적 영역이 아닌 말의 유희 속에서 위안을 찾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아일랜드가 계속해서 영국의 식민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의 표현이다.

제국주의 지배는 식민지 사회에 대해 잘 아는 안내자를 필요로 한다. “텔레마쿠스” 장에서 멀리간은 아일랜드를 방문한 헤인즈를 안내하면서 아일랜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안내자로 등장한다. 그는 헤인즈에게 스티븐을 소개해 주고, 스티븐의 재치있는 말과 햄릿에 관한 이론으로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는 스티븐의 지적 재능으로 영국인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식민지에서 진귀한 것을 보여주려는 식민주의 앞잡이의 모습이다. 그는 스티븐에게 “너의 실체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나야”(1.160-61)라고 말하거나, 스티븐에게 현옷을 주는 행동 등으로 피지배민을 안심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런던뜨기 말투”(1.299)를 흉내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식민주의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멀리간과 같은 식민주의자에 기생하는 사람들은 파농(Fanon)에 따르면 “끊임없이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피지배민이다(52). 멀리간이 옥스퍼드 대학생들처럼 “부터 나는 목소리”(1.107)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식민지에서 지배자와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식민주의 앞잡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탐을 실제로 소유하면서도 그 권리를 박탈당한 스티븐을 통해 피지배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식민주의자의 안내인인 멀리간은 스티븐의 허락도 없이 헤인즈를 데려와 재우고, 스티븐으로부터 마텔로 탐의 열쇠를 뺏는다. 스티븐의 가난에 찌든 모습은 식민지배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피지배민의 모습이다. 특히, “두 화려한 옷차림 사이에 값싸고 먼지 묻은 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1.570-71)을 보는 장면에서 식민지배의 가혹한 현실이 재현되어 있다. 스티븐은 피지배민의 상징으로 셰익스피어의 『태풍』(*The Tempest*)에서 피지배자의 원형으로 등장하는 “칼리반”(1.143)에 비유된다. 또한 스티븐은 헤인즈가 자신을 “야성적인 아일랜드인”(wild Irish)(1.731)으로 보고 있음을 직감한다. 영국인에게 있어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직 원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영국인의 지속적인 지배를 요하는 대상이다. 피지배민인 스티븐은 자신의 지배받는 현실을 지각하고 있는 민족작가이다. 그는 멀리간처럼 영국인에게 구걸하면서 살기를 거부한다. “네스토”(Nestor) 장에서 스티븐은 멀리간을 “욕망에 도취되어 열시를 받으면서도, 너그러운 주인의 찬사를 얻으려고, 주인의 비위를 맞춰대는 광대놈”(2.43-6)이라고 말한다. 그는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텔레마쿠스” 장 끝에서 식민지배자 헤인즈와 그의 앞잡이인 멀리간을 “찬탈자”(1.744)로 규정하고 거부한다.

같은 피지배민이면서 스티븐과는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우유배달 할머니이다. 그녀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녀의 정체성은 다음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슬같은 비단결 암소들. 옛날 그녀에게 비단 같은 암소니 불쌍한 노파니 하는 이름들이 주어졌었다. 방랑하는 노파, 그녀의 정복자와 그녀의 경쾌한 배신자를 시중드는 비천한 불사조의 모습, 그들 두 사람의 공동의 침, 신비의 아침으로부터 나타난 한 사람의 사자. 시중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나무래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호의를 요구하는 것을 경멸했다. (1.404-7)

전통적으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묘사되어 있는 우유배달 할머니는 오랜 식민화의 결과, 아무 저항능력도 없이 현실에 순응해 살아가는 아일랜드의

모습이다. 그녀는 그녀의 “정복자”인 헤인즈와 그녀의 “배신자”인 멀리간을 시중 들고 아일랜드 민족작가인 스티븐을 “경시하고 있다”(1.419). 돈과 권력이 있는 자를 시중드는 그녀의 모습은 스티븐이 벗어나려는 악몽이다.

결국 “텔레마쿠스” 장은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모습을 평범한 아침의 일상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다. 네 명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유형화된 모습으로 제시되어 정치적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헤인즈로 대변되는 영국인의 아일랜드 지배는 멀리간이라는 내부 공모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두 집단의 인물들은 스티븐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고 아일랜드 사람들을 우유배달 할머니와 같이 철저히 굴복시킨다. 식민저항의식이란 조금도 없는 우유배달 할머니는 스티븐과 같은 민족작가를 경시한다. 조이스는 식민화의 폐해를 일상생활을 통해 제시하면서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III

“사이렌스” 장은 술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조이스는 그의 스키마에서 사이렌스(Sirens)-바의 여종업원(barmaids), 섬(Isle)-바(bar)라는 단순한 대응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장을 정치적 알레고리로 읽을 경우, 아일랜드라는 배경뿐만 아니라 작품 내의 여러 가지 요소가 정치적 관점에서 작품 읽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작품 첫 부분은 케네디(Kennedy)양과 도우스(Douce)양이 총독을 태운 마차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총독은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먼드 바(Ormond Bar)에 있는 사람들이 “까까머리 소년”(Croppy Boy)과 같은 정치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 역시 이 장의 정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 부분은 블룸(Bloom)이 라이오넬 마크(Lionel Marks's) 골동품점을 지나면서 아일랜드 애국자인 에멧(Emmet)의 초상화를 보게 되고 그의 최후의 말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 또한 “사이렌스” 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이렌스” 장을 정치적 알레고리로 볼 때, 구체적인 대응관계는 술, 노래-영국 또는 식민화의 도구들, 바(bar)-아일랜드, 바의 사람들-아일랜드 국민이라는 평형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은 아일랜드인이 영국에 의해 식민지

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노래와 술에 취해 가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사이렌스” 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사이렌스” 장에서 노래는 식민화의 도구로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식민정복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는 뮤직 홀과 같은 대중문화가 가졌던 정치적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역사적 근거가 있다. 체릴 헤일(Cheryl Herr)이 주장하듯이, “민중문화와 반대되는 대중문화는 [상류계층이] 해계모니를 잡기 위해 설정한 사회적 목표를 하층민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195-96). 오먼드 바와 같은 뮤직 홀은 노래를 통해 영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전수되는 장이다. “사이렌스” 장에 등장하는 많은 노래 가운데서 고울딩(Goulding)이 부르는 “사자(死者)들 사이에 누워”(Down among the Dead Men)는 영국의 음주가로, “여왕의 건강과 영속하는 평화를 위한 건배”로 시작되고 “숨쉴 수 있는 한 술을 마실 것”을 권한다(Gifford & Seidman 301). “사이클롭스” 장에서 블룸이 “술은 아일랜드의 저주의 대상”(12.684)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음주는 아일랜드인들이 자립하여 독립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아일랜드에서 이러한 노래가 널리 불려지는 것은 식민지배를 지속하려는 영국의 지배책략으로 볼 수 있다.

“사이렌스” 장에 등장하는 노래 중에 이별, 실패, 배반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다. 사이몬(Simon)이 부르는 “안녕, 내 사랑, 안녕”(Goodbye, Sweetheart, Goodbye)과 “마사”(Martha), 고울딩이 부르는 “몽유병자”(La sonnambula)는 상실과 이별의 슬픔을, 둘라드(Dollard)가 부르는 “까까머리 소년”은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좌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별과 실패의 노래는 작품 끝에 나오는 에멧의 실패한 봉기와 연결된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현재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올로스”(Aeolus) 장에서 보여주듯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리스와의 자기동일시 속에 패배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정직하게 인정하지는 않을지라도, 아일랜드 국민들은 지배받는 민족이 되는 데에서 무의식적인 만족을 느낀다”(Cairns and Richards 50). “사이렌스” 장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노래 속에서 자신의 패배와 아일랜드 민족의 패배를 다시 깨닫고, 그들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다. 패배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은 패배한 개인의 삶과 민족의 삶의 상태에 순응한다. 아일랜드에서의 음악은 이렇게 인물들이 현재에 젖어 미래의 새로운 삶을 망각하게 만든다. 블룸은 오먼드 바를 떠나면서 음악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카울리(Cowley)가 음악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일종의 만취상태”(11.1191) 또는 “정신나간 상태이며”(11.1193), 이때 “생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11.1194)고 말한다.

노래가 대변하는 식민공격성은 노래부르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돌라드는 군인의 애인이 부르는 부분인 “사랑이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로잡을 때”를, 군인 파트를 부르듯이 “폭격하는 음조로 피아노를 뽕뽕(booming) 울리면서 바순음으로 공격”(11.528)한다. 애인의 부분은 원래 더 가벼운 음인 테너나 소프라노로 불려나 하는데 공격적으로 부르는 그의 모습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의 모습은 이 장이 보여주는 공격자로서의 음악의 역할을 암시한다. 더욱이 그는 큰 몸집 때문에 “Big Ben”(11.959; 1070)으로 불린다. 서술자는 그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이 “Big Benaben Dollard. Big Benben. Big Benben”(11.1154)이라고 말장난을 한다. 빅벤이 런던에 있는 영국의 의회건물로서 영국을 상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이스는 이러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렌스” 장이 식민화 되어 가는 과정을 알레고리로 보여주고 있지만, 아일랜드인의 모습은 식민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준다. 이 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적양상 또한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즉,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매조키즘이 바로 그것이다. 블룸은 보일런이 그의 집에 당도하여 물리와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자 성기가 발기하고 성적 공상에 잠기게 된다. 이러한 남녀의 성적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매조키즘적 관계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사이몬과 고울딩은 사이가 나쁘다. 그들은 “결을 지나쳐도 말을 하지 않는다”(11.789). 고울딩은 사이몬이 네드 램버트(Ned Lambert)의 집에서 노래부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노래 실력을 칭찬한다. 블룸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울딩은 사이몬을 “경멸로써 대우하”지만 “그를 더욱 찬미한다”(11.790).

음악과 더불어 술은 식민화의 도구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정부는 친영파가 많이 사는 얼스터(Ulster) 지역을 제외한 아일랜드에서 술을 제외한 다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거부하였다. 조이스는 “태양신의 황소들”(Oxen of the Sun) 장에서 영국왕은 아일랜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푸른 풀 이외에 아무 것도 자라지 못하게”(14.610-11)한 영국의 아일랜드 정책을 비난한다. 이러한 정책은 아일랜드가 영국인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농업국가가 되게 하

였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된 아일랜드인을 위해 고안한 정책이 기네스 맥주와 같은 알코올 산업이다. 술은 정치적 어려움을 잊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돌라드가 부르는 “사랑과 전쟁”(Love and War)이라는 곡에는 “사랑의 상처와 전쟁의 아픔을 섞읍시다/ 바쿠스 신을 부릅시다/ 장미빛 포도주로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Gifford & Seidman 292)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에서 음주가 차지하는 역할을 생각나게 한다. 블룸은 벤 돌라드가 영국 술인 “최고급 술 바스”(11.1015)를 마시고 폐인이 되어 지금은 자선원인 “아이베아 홈”(11.1014-5)에 기거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알콜 산업의 정치적 의도를 파헤친다.

그들을 망친다. 그들의 생활을 망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생을 마칠 작은 방을 지어 준다. 자장. 자장. 죽어요, 망나니. 하찮은 망나니 같으니, 죽어요.
(11.1018-19)

고울딩도 “허리가 아프고, 브라이트병의 반짝이는 눈”(11.615)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염으로 과도하게 알콜을 섭취해서 생긴 것이다”(Gifford & Seidman 301). 인물들이 술로 인하여 병이든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 장에서는 술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이렌스” 장에서는 “까까머리” 소년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평소 억압되었던 “꿈이나 환상과 같은 내면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역할”을 술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Curtis 40). 술을 마심으로써 이러한 세계를 경험하지만, 이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실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케네디양에게 “총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다(11.544). 피지배국가에서 왕이나 총독이 군중들 사이를 행차하는 일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민족적인 노래를 부르지만 정치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노래와 술은 현실적 어려움을 잊어보겠다는 노력에 불과하다. 그들은 아일랜드 식민상태에 그대로 안주한다.

“사이렌스” 장은 음악과 술을 마시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에서 식민화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음악과 술에 기꺼이 취하는 모습은 식민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이다. 평범한 술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알레고리적 대응관계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총독이 지나가는 모

습이나 에멧과 같은 아일랜드 애국자들에 대한 언급은 이 장을 정치적 알레고리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실마리를 주었다.

IV

『율리시즈』는 남녀관계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성적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작품의 주된 이야기는 블룸과 몰리 부부의 성적인 문제이다. 작품의 배경이 된 1904년 6월 16일, 보일런은 몰리와 정사를 가짐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다. 이러한 남녀관계는 블룸-아일랜드 남성, 몰리-아일랜드, 보일런-영국 제국주의라는 대응관계를 설정해 볼 때,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성적인 관계를 정치적인 관계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조이스가 가진 기본적인 사상이기도 하다. 그는 성적 관계를 정치적 관계와 동일시했다. 즉, 그는 “여성의 지위 하락은 아일랜드의 지위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성적 잔인성을 영국의 똑같이 잔인한 아일랜드 정복과 연계시켰다”(Manganiello 51-2). 따라서 보일런이 몰리를 범하는 것은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아일랜드 식민화와 연계시킬 수 있다.

몰리는 여러 면에서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아일랜드 민족주의 담론에서 아일랜드 여성들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때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이상적인 여성을 성모 마리아라 생각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녀에게서 발견하려 했다. 몰리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날(9월 8일)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아일랜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엘만(Ellmann)의 조이스 전기에 따르면, 조이스는 그의 아내 노라(Nora)를 몰리의 모델로 삼았다. 조이스는 노라를 아일랜드의 상징으로 보았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동일시하였다.

외골수 귀족인 모드 곤(Maud Gonne)이 에이츠에게 아일랜드를 대변하듯, 조국의 강인함을 소유한 노라는 조이스에게 아일랜드를 상징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국에 대한 애국자의 사랑과 같았다; 그것은 열성적인 신자의 신에 대한 사랑과 같았다. (Ellmann 287)

노라가 아일랜드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의 중심지인 서부 지역 골웨이

(Galway) 출신이라는 점 또한 그녀가 아일랜드와 동일시되는 근거중 하나이다. 몰리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노라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몰리와 정사를 가진 보일런은 헤인즈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국주의와 연결된다. 그의 아버지는 “보어전쟁에 싸울 말을 정부에 팔았는데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팔아”(12.997-99) 재산을 모은다. 보어전쟁이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임을 감안한다면, 보일런의 아버지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것이다. 보일런이 제국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몰리와의 관계에서 그를 제국주의자와 연결시킬 수 있다.

“사이렌스” 장은 보일런의 성적 추구와 제국주의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피소드이다. “사이렌스” 장 도처에 산재해 있는 “정글”이라는 소리는 보일런이 몰리를 만나기 위해 타고 가는 마차 소리로 제국주의 정복의 주제를 남녀관계로 확대 해석하도록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보일런의 마차 소리는 이 장 첫 부분에 나오는 총독의 마차소리를 상기시킨다(11.66; 545; 549-50). 총독일행과 보일런을 마차소리를 통해 보여주면서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두 사람을 대조시킨다. 그러면서 정치적 지배와 성적 지배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보일런은 “정복자 영웅”(11.340)이라고 언급되는데, 총독을 일컬을 수 있는 말을 보일런에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서씨” 장에서도 이런 점을 찾을 수 있다.

제임스 바턴이 모는, 324호의 샷마차 한 대가, 반짝이는 엉덩이를 가진 암말에 끌려 도리브록의 하모니 가도를, 급히 지나간다. 블레이지즈 보일런과 레너헌이 나란히 앉아 다리를 뻗은 채 몸을 흔들고 있다. 오먼드 주점의 심부름꾼 아이들이 뒤쪽 차축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차일 너머로 리디아 도우스와 마이너 케네디가 슬픈 듯이 노려보고 있다. (15.3728-31)

도우스양과 케네디양이 마차 행렬을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독자는 그들이 총독의 마차를 보고 있을 것이란 선입감을 가진다. 그러나 “사이렌스” 장 첫 장면과 달리 여기서 도우스양과 케네디양은 보일런의 마차를 보고 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하면서 총독 대신 보일런을 등장시킨 것은 두 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페넬로피” 장에서 몰리는 보일런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회상한다. 몰리는

“[자신]이 [보일런]을 휴(Hugh)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보일런이 그녀]의 엉덩이를 때린”(18.1369-70) 것에 화가 나있다. 조이스는 물리를 통해 “예의도 세련미도 없는”(18.1368) 보일런은 “사랑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구가 그로 하여금 [물리]를 추구하게 하였고,” 그가 “군인들의 도덕적 코드”를 가졌음을 보이려 했다 (Manganiello 50). 보일런은 물리와 상호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남녀관계에 있어 거친 그의 태도는 정치적인 잔인성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다. 보일런의 거친 태도와 달리 블룸은 아내의 “포동포동하고 원숙한 노란색의 향기를 풍기는 수박 형의 엉덩이”(17.2041)에 키스한다. 아내의 엉덩이에 대한 그의 애정의 표시는 키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수식하는 다양한 형용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블룸의 이러한 행위는 “페넬로피” 장에서 물리의 수많은 “yes”의 반복에서 예시되는 블룸과의 재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잠시나마 아내를 보일런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만, 블룸이 “정복당하지 않은 영웅”(11.342)으로 불리는 것은 남녀관계에 있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다. 조이스가 남녀관계를 정치적 관계와 연관시켰음으로 블룸의 여성에 대한 배려는 아일랜드의 지위회복으로 확대 해석된다.

『율리시즈』에서 남녀관계는 식민 지배와 해방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정치적 알레고리이다. 보일런의 물리와의 성관계와 버릇없는 그의 태도는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상기시킨다. 반면 “페넬로피” 끝 장면의 물리와 블룸과의 재결합은 아일랜드 독립을 암시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될 수 있다.

V

『율리시즈』는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표면적으로 별 의미없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또한 한 에피소드에 많은 담론이 혼재되어 있어 작가의 메시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이러한 별 의미없고 혼란스러운 것 같은 이야기에 조이스의 스키마처럼 작품을 읽는 일정한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 작품을 정치적 알레고리로 보고 “텔레마쿠스” “사이렌스” “페넬로피” 등 세 개의 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이스의 작품은 영국의 식민지배 역사를 군대군데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정치적 알레고리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각 인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정치적으로 확장되어 재해석된다. 각각의 인물은 아일랜드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아일랜드 식민 지배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사소하게 보이는 인물들의 행동은 식민화와 연관된다. 헤인즈와 보일런의 행동은 식민 지배자의 모습을 반영하고, 우유배달 할머니와 바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피지배자의 억압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조이스가 아일랜드 식민정복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식민정복 과정을 다시 씌으로써 식민 역사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임슨의 “모든 제3세계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민족의 알레고리이다”(69)라는 주장이 조이스의 작품에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율리시즈』에서 조이스는 식민 지배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아일랜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 이해는 식민시대의 작가에게 탈식민화의 토대가 된다. 한편, 조이스가 보통사람의 일상생활을 기획하고 이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자 한 것은 식민시대 작가의 궁지의 표현이다. 식민시대의 정치적 검열은 작가가 그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다. 정치색이 명확한 방법으로 작품을 쓸 수 없는 식민시대의 작가에게 있어서 알레고리 기법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따라서 『율리시즈』를 정치적 알레고리로 읽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조이스의 저항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충북대)

인용 문헌

- 왕철. 「드포우의 프라이데이와 쿿시의 프라이데이」. 『영어영문학』 48. 1. 한국영어영문학회, 2002 봄. 53-78.
- Ahmad, Aijaz. "Jameson's Rhetoric of Otherness and the 'National Allegory.'"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Eds.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77-82.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London: Routledge, 1989.
- Cairns, David and Shaun Richards. *Writing Ireland*. Manchester: Manchester UP, 1988.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Curtis, L. P., Jr. *Anglo-Saxons and Celts: A Study of Anti-Irish Prejudice in Victorian England*. Connecticut: The University of Bridgeport, 1968.
- Defoe, Daniel. *Robinson Crusoe*. New York: W. W. Norton, 1994.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7.
- Gifford, Don & Seidman, Robert J.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Herr, Cheryl. *Joyce's Anatomy of Culture*.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6.
- Jameson, Fredric. "Third 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Fall 1986): 65-88.
- JanMohamed, Abdul R.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Eds.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18-23.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Abstract

A Postcolonial Text as a Political Allegory: Joyce's *Ulysses*

Seok-Moo Choi

An allegorical text contains a complete and self-sufficient narrative, but through a series of selected correspondences it can be also applied to another event or condition. In colonialist texts such as *Robinson Crusoe*, the Manichean allegory is introduced to express the indisputable distinction between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On the other hand, postcolonial writers in the colonized countries, who are prevented from expressing their views directly, appropriate the allegory to convey their political messages.

Ulysses, a story about a colonial city, may be read as an allegory about the British domination of Ireland. In "Telemachus," through the relationship of Stephen, Mulligan, Haines, and the Milkwoman, colonial history in Ireland is implicitly suggested with each person representing an allegorical role. "Sirens" demonstrates a process of allegorical colonization, expressed in terms of becoming immersed in drinking and music. Also, as a story of marital infidelity *Ulysses* evinces that sexual domination of Molly by Boylan is allegorically interconnected with political domination of Ireland by Britain.

Daily life shown in *Ulysses* may not look meaningful enough to become the subject matter of a novel. When rea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allegory, however, each character and his or her behavior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understanding of political situations and colonial discourses adopted for the benefit of the colonizer. As in the case of *Ulysses*, allegory is a useful technique to postcolonial writers like Joyce who, threatened by censorship, would still like to convey a political message of resistance. Therefore, Joyce's use of political allegory in *Ulysses* is a covert textual method of analyzing and repudiating colonial past and thus pursuing a decolonized society.

■ 주제어 : Joyce, *Ulysses*, postcolonial, allegory, colonization (조이스, 『율리시즈』, 탈식민주의, 알레고리, 식민화)